

“동학 등 ‘K사상’, 세계에 내놓을 고유의 자산”

개혁사상과 종교공부

백낙청 외 지음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린 ‘선천 개벽’ 같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람과 정신과 마음에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대변혁을 ‘후천개벽’으로 규정하고 추진한 것은 유독 한반도에서 시작된 현상이요 사건이다.”

문학평론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3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동학·천도교편, 원불교편, 기독교편으로 이어지는 개혁사상 좌담을 3차례 진행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19세기 밀려드는 서학(西學)에 맞서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개혁사상과 개벽운동에 중점을 두고 토론했다. 신간 ‘개혁사상과 종교공부’는 3편의 좌담 녹음을 풀어서 책으로 묶은 것이다. 도솔 김용욱의 ‘동경대전’ (2021년) 출간을 계기로 진행했던 특별 좌담을 서두에 배치했다. ‘K사상의 세계화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크게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K사상의 출발 ▲동학의 확장, 개혁의 운동 ▲원불교, 자본주의 시대의 절실하고 안전한 공부법 ▲기독교, K사상의 가능성 모색하다 등 4부로 구성됐다.

1부(백낙청, 철학자 도솔 김용욱, 동학연구자 박명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동학을 창도(淸淸)한 수운 최제우와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중사를 중심으로 개혁사상에 대해 이야기기를 나눈다. 세 사람의 좌담은 하이데거와 화이트헤드, D.H 로런스 등 사상가들까지 동·서양을 넘나들며 폭 넓고, 깊이 있게 펼쳐진다. 도솔 김용욱은 “수운은 인류 5만 년의 정신사를 응합시킨 상징체”라면서 “동학사상의 역사적 의의는 진정한 민주의 민족사적 원점을 이미 19세기 중엽에 우리 민족의 자생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창출했다는 데 있다”라고 밝힌다. 박명수 교수는 “동학부터 증산교·대중교·원불



동학·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태어난 우리의 독자적인 종교이자 사상이다. 1894년 5월 동학농민혁명군이 첫 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조형물 ‘불멸-비람길’ (작가 임영선).

교 등 땅적인 것, 민중적인 것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던 개혁파라는 전통을 볼 수 있다”며 “개혁의 기점과 출발을 조선 땅,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곳을 강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 바탕에 흐르는 비폭력 평화정신은 동학혁명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백낙청, 정치학 전 영남대 교수, 김용휘 대구대 교수)는 해월 최치형의 민중성, 동학과 원불교의 상동점·차이점,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동학에 입도했던 5대조 할아버지에 대해 뒤늦게 듣고 동학을 공부하게 된 문학평론가 정치학 교수는 “동학으로부터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사유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해월은 민중적인 동학사상을 완성하고, 실천한 생명사상가”라고 말한다. 김용휘 교수는 1920년대 천도교청년회 중심의 문화운동은 개혁운동이라며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전개된 사회운동, 독립운동, 나아가 문명전환 운동이었다”고 평가

한다. 3부(백낙청, 방길튼 원불교 안산국제교당 교무, 허석 원광대 교수)와 4부(백낙청, 여성주의 신학자 이은선 세종대 명예교수, 이정범 감신대 은퇴교수)는 원불교와 기독교에 대해 심도있게 파고든다. 또한 일야 변선환, 해전 윤성범, 여성신학자 박순경, 신학자·목사 이신, 다석 유영모 등을 새롭게 조명한다. 토론은 ‘기후재난과 생태위기 등 직면한 과제에 K사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로 귀결된다. 독자들은 전문가들의 고품격 좌담에 동석한 것처럼 동학·천도교, 원불교 등 ‘K사상’의 이론적·실천적 흐름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개혁사상가와 ‘K사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혁명적인 개안(開眼)을 하게 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부터 촛불혁명이 이르는 역사적 실천의 바탕을 이루는 ‘K사상’이 “한반도가 세계에 내놓을 고유의 사상적 자산”이라는 저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창비·2만6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전쟁 이후의 세계=국제사회는 수많은 분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전쟁은 종식보다 10년 이내 러시아와 나토가 전쟁을 벌인다는 확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한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전쟁 중에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일련의 전쟁을 다윈 패권 시대로의 이행을 알리는 징후로 해석하는 관점을 담았다. 그 속에서 한국이 ‘전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명확히 제시한다. <한계출판·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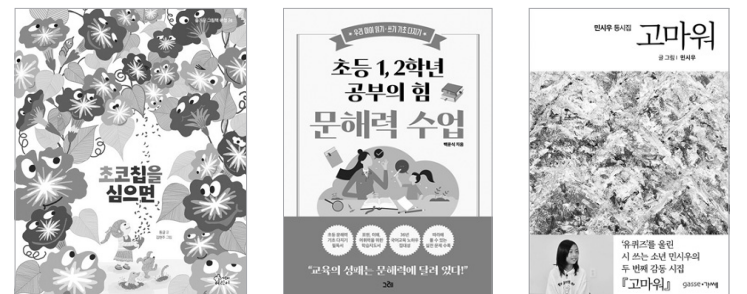
▲미세먼지=에어로졸은 미세먼지와 같은 말일까? 30년 현장경력을 지닌 대기질 전문가가 미세먼지에 얽힌 지식과 에피소드를 풀어낸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 물질부터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의 현주소, 성분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추적 등 대기오염의 A부터 Z까지를 들여다본다. 대형 공기청정장 설치나 아스팔트 광촉매제, 인공강우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들부터 현실적인 대안까지 탐구한다. <이음출판사·1만7000원>

▲초대받은 여자1=사르트르와 제자 율가 코사키에비치를 둘러싸고 빚어진 삼각관계를 진솔하게 그려 낸 실화 소설. 프랑수아즈-보부아르, 피에르-사르트르, 그 자비에르-율가 코사키에비치를 관찰하는 주변인들은 각각 ‘보편적 실존’을 대변하

는 소설 속 상징화된 인물들이다. 보편자를 통해 들여다 본 삼각관계의 처절함, 실험적 계약 결혼의 전말을 읽어가며 인간의 상처와 사랑, 존재와 비극 등을 성찰한다. <민음사·1만6000원>

▲장벽 너머=동독은 1990년 통일돼 그 존재를 지웠다. 스탈린의 감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박해가 존재했음에도, 동독은 문화사회적으로 나름의 꽃을 피웠던 공간이었다. 방대한 인터뷰와 편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라진 동독을 탐구한다. 1918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 스탈린의 알력 다툼은 물론 1950년대 사회주의의 융성을 기록으로 들여다 본다. <서해문집·3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초코칩을 심으면=아빠는 아이에게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선물한다. 엉덩이가 들쭉거릴 정도로 맛있으며 좋아하는 아이는 어느날 화단에서 놀다가 나팔꽃 씨앗을 본다. 초코칩을 담은 모습을 보고 아빠와 함께 ‘초코칩을 심으면 나팔꽃이 주렁주렁 열릴까’라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 화단을 애정으로 가꾸어 나가며 자연과 아빠의 소중함을 느낀다. <가문비어린이·1만4000원>

▲초코칩을 심으면=아빠는 아이에게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선물한다. 엉덩이가 들쭉거릴 정도로 맛있으며 좋아하는 아이는 어느날 화단에서 놀다가 나팔꽃 씨앗을 본다. 초코칩을 담은 모습을 보고 아빠와 함께 ‘초코칩을 심으면 나팔꽃이 주렁주렁 열릴까’라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 화단을 애정으로 가꾸어 나가며 자연과 아빠의 소중함을 느낀다. <가문비어린이·1만4000원>

▲초등 1,2학년 공부의 힘 문해력 수업=읽고 쓰는 ‘문해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의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문해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 어휘, 이해, 표현 등을 위한 학습지도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문제 등을 수록했다. <그레출판사·1만6800원> ▲고마워=‘유리’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제주 소년 민시우의 동시집. 섬에 사는 소년은 ‘별’이 된 엄마를 생각하며 매일 시를 썼다.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자리를 찾아가 이픔을 시화했다. ‘혼자라서 행복해’, ‘마음의 소리’ 등 슬픔을 넘어 희망을 선사하는 작품들을 담았다. 아빠 따라 영상을 만들어온 경험도 시에 녹아 있다. <가문비·1만5800원>

편견·풍파 속에서도 ‘할 일’ 한 예술가들의 삶·작품

당신이 사랑한 예술가

조성준 지음



1947년 미국에 매카시 열풍이 불어닥치며 할리우드에 ‘빨갱이 사상’이 시작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스타 시나리오 작가 돌턴 트럼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유명작가가 돼 11개의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한다. 그 중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은 ‘로마의 휴일’과 ‘브레이브 윈’이 두 차례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며 영화사에 이름을 남긴다.

지금도 절절한 노래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디트 피아프의 유년 시절은 비참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142cm에 멈춘 그는 작은 몸집 때문에 ‘작은 참

새’를 뜻하는 피아프로 불렸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프랑스 국민가수가 된 그는 사랑했던 마르셀 셰르망이 세상을 떠나자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졌지만, 연인을 생각하며 노래한다. 유명한 ‘사랑의 찬가’다.

매일경제 기자로 ‘예술가의 일’을 쓴 조성준이 세간의 편견과 풍파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불굴의 예술의 지를 다룬 ‘당신이 사랑한 예술가’를 펴냈다.

책은 ‘차별과 편견을 넘다’, ‘존 케이지와 굴다처럼’, ‘누가 스타를 죽였는가’, ‘캡틴, 마이 캡틴’, ‘시네마 천국으로 떠난 거장’ 등 5부로 나눠 작가, 화가, 건축가, 만화가, 가수 등 25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낯선 세상과 불화하며 흔들렸고, 때론 세상이 그들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한 사람들”이다.

1955년 ‘명칭한 금발 미녀’라는 편견에 갇혔던 매일린 먼로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 한장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 속 책이 방대한 분량과 난해함으로 소문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가 허세를 부리기 위해 어려운 책을 읽는 척 했다고 조롱했지만 사후 공개된 그의 서재에는 알베르 카뮈, 마르셀 프루스트 등의 수많은 책이 꽂혀 있었다. 그는 또 배움을 행동으로 연결해 핵심만 반대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흑인 인권 운동을 후원했다.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책에서는 또 권력에 맞섰던 건축가 김중업, 서양화 기술로 조선의 얼굴을 그린 월북 화가 이태대, 충무로의 기인 김기영 감독 등 국내 예술가들도 소개한다. 그 밖에 재즈의 황제 마일스 데이비스,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 영화 ‘조커’의 히스 레저와 ‘죽은 시인의 사회’의 로빈 윌리엄스, 코코 샤넬, 르 코르뷔지에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정신·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